

永生的仰望



◎ 陳平常點傳師
韓譯：廖培君

重新憶起與您老人家的永別是痛苦而又感傷的事；尤其是一位窮其一生歲月，一直為呵護著我們而勞碌奔忙，且親如慈父的長者。

儘管您成道已近一年，但卻總讓人無法真的認為您已離我們而去。曾經在無數的獨處時刻裡，甚至於生活日用之間，總是似有若無的浮起您那威德而又慈祥的影像，彷彿如此這般便會得到心靈的慰藉，以及沉澱些許烙印在腦海裡的想念。

曾經癡想：您會是永不殞落的巨人。但終究還是無所逃於「生之有涯」的形體命限。在您走後的這一年裡，還真無法適應沒有您諄諄教誨的日子，也才清楚的感受到您是如此的令人仰賴。

雖然說在修道的境地裡是死生一如，並無所謂的分離，可是一想到再想聽到您果決而又略帶沙啞的智慧法語，也只能在夢裡追憶，不禁悵然若失。

일생의 앙망

◎진평상 점전사님
번역자:요배군

다시 장노전인께서 이 세상을 뜬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애잔합니다. 특히 그분은 평생 동안 늘 애쓰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장노전인께서는 우리 한테 아버님 같은 존재입니다.

장노전인께서 성도하신 후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되었지만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선생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 속은 더 깊은 상념으로 남습니다.

저는 장노전인께서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육신은 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자연법칙을 어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노전인께서 귀공 하신 후에 1년 동안은 정말 적응할 수 없었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수도의 경지(境地)에서 삶과 죽음이 다 똑같으니까 이별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선생님의 지혜로운 법어를 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섭섭합니다.

看著我們的眼睛

去年六月二十日，聽到您病危的訊息，急忙從澳洲趕回台灣，從機場直奔台大醫院。甫進病房，就看到幾位同修滿臉悲戚地圍繞在您身旁，而您正吃力的呼吸著，好像每吸一口氣就要吸進眾生的苦痛，承擔苦業。而每呼一口氣，就想呼盡生命的養分，潤澤眾生。此種情境，讓後學心頭一陣翻湧，不忍與哀慟所交錯的酸楚攪動著心隱隱作痛。

後學知道您正在受苦，是為了替我們擔當苦業在受苦（雖然您曾說過，受苦也是一種修行。）是因為後學們修得不好，不能分擔您頂劫救世所帶來的業報，才會讓您這麼的受苦。

後學沒有哭，也強忍著不落淚，但當看到您緩緩閉上眼睛的剎那，就再也忍不住哀慟悲泣，因為這雙看著世間的眼睛，曾經在無明黯夜閃爍著，帶給我們無量光明的眼睛，將從此在世上消失。今後，我們將永遠失去這雙炯炯有神、前引著我們走在光明路的眼睛，這才是真正的哀慟。

無法釋懷的遺憾

這幾年來，您養病在床，已甚少於言語，偶而從口中說出幾句話，便足以成為大家心頭的欣慰之源。對於後學們的探望，您總是靜默以對。

有一次後學去拜見您，您知道後學回來了，緩緩的張開眼睛默望著後學，然後輕吐一口氣。後學想，這一口氣一定是內心深處的有感而發——是對於力不從心的無奈，或者是對基礎道務的憂心，亦或是……。

想嘗試去讀懂您的心意，但終究還是不能意會您那數不清的百感交集，於是後學開始懊悔，懊悔沒有多陪陪您，傾聽您內心深處鮮為人知的心聲；懊悔沒有多陪您到郊外散散心，溶浸於大自然的懷抱；懊悔沒有多挖掘您那智慧如海的無量寶藏，懊悔……。

우리를 바라보는 눈

작년 6월 20일에 장노전인께서 병세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호주로부터 대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공항에 내리신 후 곧장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선생님, 도친들의 얼굴은 다 슬픔으로 가득했고 선생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때는 선생님께서는 힘을 다해 호흡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숨을 들이쉬는 모습은 중생의 고통과 고뇌를 다 받은 것 같았고, 한 숨을 내쉬며 자기 생명의 양분을 중생한테 다 나누어주고 싶은 것 같으셨습니다. 이런 정경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뇌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일은 수행 중의 하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업보를 분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힘을 다해 호흡하는 일을 보니까 저는 눈물을 머금었는데 선생님이 눈을 감은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의 두 눈은 우리에게 무량한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눈빛의 형형하고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눈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애통합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후회

장노전인께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시간이 아주 적었습니다. 가끔씩 얘기하면 우리는 기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노전인께서는 후학들이 문병하면 항상 조용하고 잠잠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생님한테 문병을 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제가 돌아온 것을 알고는 서서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한 숨 쉬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꼭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셨습니다. 아니면 기초도장의 일이 걱정이 많아서 한 숨을 쉬셨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여러 번을 맞춰보는데 결국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선생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선생님 마음 속의 깊은 생각을 잘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지 못해서 후회했습니다. 수 많은 후회가 바닷물처럼 저한테 습격했습니다.

您曾不只一次的說，喜歡澳洲，想到布里斯本小住一段時間。有一次後學回台拜望您，您高興的從床上坐起來，對著後學說：「我身體好了，已交代他們買機票，過兩天就去澳洲。」看到您興奮而又渴望的神情，也不禁報以會心的微笑。可是您終究還是沒有克服身體病痛的拘限，直到您成道返天，也未能成行，沒讓後學有機會近身受教，朝夕服侍，這是後學至今仍無法釋懷的遺憾。

永生的仰望

銘心感謝生命中的緣遇，老前人您以人間的至愛，提攜一個與您並無血緣關係的人。後學曾經在無數的夜晚沉思，如果沒有碰到您老人家，後學有可能還在人生的十字路口徘徊，甚至沉戀於紙醉金迷之中。是老前人您殫精竭慮地丹誠相許，也是後學有幸於您的身教濡染，也才能在此生的歲月中，生命有超越的伸展。

奉您老人家之命來澳洲開荒辦道的這十幾年中，凡是走過的足跡裡，總是複印著您曾踏過的印痕，您多封書信的慰勉，就像一層一層的階梯，引領著後學通向基礎的家風；您老人家的訓誨，將是後學終生奉行不渝的憑靠。您引領著後學真誠地走到今天，也期待未來無愧於您之所付。

儘管您已離我們遠去，但思念、仰望將穿破時空的阻隔。您的教誨，修道的典範，將不會在記憶裡遺失。您沒能在我們身邊，但在今後修辦的足跡裡，在筆尖下，在道場的每個角落，您都將堅強剛毅的活著，因為您是後學們永生的仰望。

선생님께서서는 여러 번 호주가 좋다고 하였고 브리즈번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만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께서서는 기분이 엄청 좋아서 침대에 앉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병이 거의 다 나왔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비행기표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틀 후 호주에 갈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흥분하고 갈망하는 표정을 보니 제 입에 미소가 살짝 띄워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서는 병통을 극복하지 못하여 성도하실 때까지 호주에 가지 못했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일생의 앙망

장노전인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갖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광명한 대도행으로 거느리고 갔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인생의 사거리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일관도를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일관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생명의 진짜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장노전인께서 명하여 호주에 가서 개황전도의 몇 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께 편지를 썼는데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편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계단처럼 저를 기초총서의 가풍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친 일을 저는 평생 동안 지키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우리의 상념과 우리름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수행 방법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 마음 속에는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